



대불청 부산지부 '2030 명상기행...' 동행취재

대불청 부산지부 회원들이 황석산 앞에 흐르는 협곡에서 레프팅을 하며 젊은 열기를 나누고 있다.

타오르는 불심 안고 또 다른 기행 약속...

대불청 부산지부 법우들 지리산 노고단서 평화 발원하고 레프팅하며 젊음 만끽

지리산, 민족의 영산이라는 이름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여름의 지리산은 어떤 것도 꺾기 힘들 수 있는 푸른 기운으로 가득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회장 손정현)가 지리산을 찾았다. 7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45명의 법우들이 '2030 명상기행, 마음을 찾아 떠나는 길'을 찾아 지리산의 푸른 기운 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첫째날-청정수 같은 삶 발원

젊은 법우들이 처음 여장을 풀 곳은 구례 천은사.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서체가 눈길을 붙잡는 한 여름의 천은사는 적멸의 순간처럼 조용하고 그윽했다. 잠시의 휴식 뒤, 법우들이 보제루에 둘러앉았다. 이미 여러 차례 발우 공양을 해본 법우들이라 전혀 어색함이 없이 공양이 진행됐다. 발우를 받아들며 맑은 청수를 붓고 각각의 양에 맞게 밥과 반찬을 담아 죽비와 함께 협장을 했다. 밥과 반찬을 비우고 단무지로 남김 없이 뒤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수로 마무리했다. 청수처럼 세상을 맑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발원을 담은 발우 공양. 그 청수 속에서는 한 여름 밤의 별들이 담겨 빛나고 있었다. 4개조로 나누어진 법우들은 각자의 '수호보살', 비밀친구를 기행이 끝나는 순간까지 조용히 그리고 뜰래 접해진 법우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아싸조', '삼죽오', '찌리찌리'... 각조의 개성

을 담은 코믹한 이름과 울돌과 구호 속에 법우들의 체온이 전해지고 구벽의 열기도 뜨겁게 달구어졌다.

둘째날-끈끈함으로 하나되다

지리산 노고단, 장쾌한 산세에 가슴이 탁 트이고 하늘과 가장 가깝게 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법우들의 마음이 숙연해진다. 이데올로기와 역사의 아픔 속에 이슬로 사라진 넋을 위로하고 고통의 역사가 아닌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계속되는 산행, 한 걸음 한걸음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를 걸어가듯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걸어가는 내내 조금만 신경을 늦추면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고 가쁜 숨을 헐떡거렸고 한걸음 내딛고 있을 때 마다 무릎에는 고통이 진하게 전해져왔다. 그러나 나와해 보이는 여성법우, 이모를 따라 참가한 초등학생, 딸과 함께 참여한 나이가 지긋한 보살님, 누구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을 찾아 떠나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다짐처럼 걸음걸음마다 굳은 의지가 가득했다. 20km, 9시간의 산행, 힘이 없을 것만 같던 그 아득한 길에 법우들의 발자국이 꽃으로 별빛으로 피어 오렌 세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찾아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아단번식, 축제의 장이 펼쳐질까? 황석산 수련장 앞마당에서 법우들은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 작은

등불을 가운데 두고 심진 스님의 노래에 맞추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쳤다. 힘들었던 산행의 고통도 기쁨으로 바뀌었다. 법우들은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가까워졌다.

셋째날-청년들 생명력 영원히...

"돌진! 앞으로~!" 황석산 앞으로 흐르는 협곡에서는 '한산대첩'이 재현된 듯 기상천외의 레프팅 전쟁이 펼쳐졌다. 각조로 나누어 보트를 타고 한 시간가량의 짧은 물놀이를 마쳤다. 서로에게 물을 끼얹고 보트를 뒤집으며 젊은 열기를 나눴다. 그러나 즐거운 놀이는 한창 즐거울 때 마쳐야 했다. 즐거움은 한량없이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을 때 그치는 용기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함양 삼림 연꽃의 숲. 천연 기념물 제154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숲이자 최대 규모의 연꽃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숲을 거닐었다. 그리고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타협하지 않으며 고고하게 자라 아름답게 꽃피우는 연꽃 같은 청년이 되기를 발원했다.

"나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갈무리된 감동과 각오가 새로울수록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 지리산 정기를 삶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또 다른 기행이 남아 있을 뿐.

지리산/글·사진=하성미 기자



대불청 부산지부 회원들이 청수처럼 세상을 맑히는 삶을 살고자 발원하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조별 모임에서 울돌과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운을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에올졸자 등

관세음보살보문품
74cm x 74cm

지장보살본원경
74cm x 74cm

달마액자
(335 x 50cm)
(442 x 65cm)

연꽃액자
26 x 26cm

죽자
60 x 20cm

순금경전규격 (소)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품(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반단,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재래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얻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주조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 포대화사향로
(대)26x16x16cm 155,000원
(소)20x12x12cm 95,000원

1등급 흑단목탁
직경 6~6.5cm
가격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밭을 마음 주어 주며 인에서 힘이 되어 주나와 예불사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답고 풍납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는 1,500°C 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핵과 93%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주는 힘이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회원 문의전화 02)722-1850